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2.2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마리퀴리(MSCA)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공모 선정률 대폭 하락 (2.24) ... 연구자들 “사실상 복권” 비판

- 최근 마리퀴리(MSCA) 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공모 결과, 지원자 급증으로 선정률이 전년도 16.4%에서 9.6%로 하락하여 연구자들 불만 증대 (총 17,000명의 지원자 중 1,610명만 선정)
- 일부 연구자들은 지원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적. 지원자들이 펠로우십 신청에 들인 인건비와 간접비 등은 총 4억 6,900만 유로로 추산 (MSCA 박사후연구원 지원 예산 총액인 4억 4백만 유로를 상회). 또한 제안서 1건 당 평가자 3명이 각각 3시간씩 심사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150유로 기준 약 3800만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
- 심사인력 부족에 따른 평가 질 저하 논란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, 다른 정책 우선순위로 오히려 축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

※ 한편, 집행위는 2026~2027년 호라이즌 유럽 예산을 재조정해 생물다양성 공모를 신설하고 스케일업 유럽 펀드 재원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

○ 영국, UKRI AI 전략을 통한 과감한 선택(2.19)

- UKRI는 2026~2030년 동안 최대 단일 투자 분야로 설정된 AI 분야에 16억 파운드의 기록적인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입할 계획
- 차세대 AI 리더 양성 및 향후 국내외 인재 파이프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적절한 도구·교육·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강화, 기업과 공동 설계한 박사과정·펠로우십 경로 확대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한 공인된 경력 체계를 보장할 계획

※ 기술개발 고도화, AI를 통한 연구혁신, AI 기술·인재 개발, 혁신 가속화,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도, AI 데이터·인프라 구축의 6개 우선분야에 투자 집중 예정

○ (기타) ▲EU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 예산 재조정 검토(2.19) ▲과학 신뢰에 관한 유럽 실천공동체 출범(2.19) ▲독일 스타트업 두니아(Dunia), 신소재 연구 위한 EU 차원의 5억 유로 규모 소재 테스트 시설 설립 제안(2.19)